



미 증시, 인플레이 부담에도 실적 기대감 지속 등으로 강세

미국 증시 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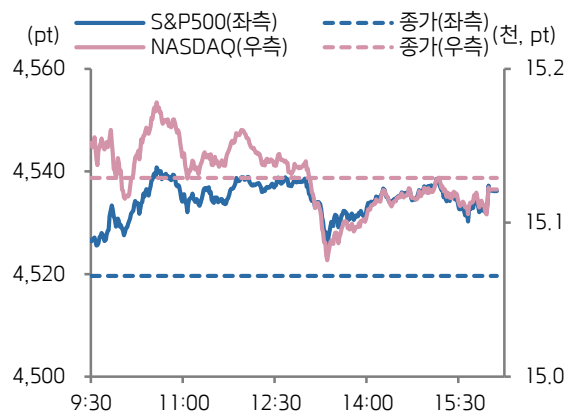
20 일(수) 미국 증시는 베이지북에서 확인된 인플레이 부담, 시장 금리 상승에도, 주요 기업들의 3 분기 호실적, 비트코인 신고가 경신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지속됨에 따라 대체로 상승 마감(다우 +0.43%, S&P500 +0.37%, 나스닥 -0.05%, 러셀 2000 +0.61%).

개장 전 실적을 발표한 버라이즌(+2.4%), 에보트랩(+3.3%), 앤섬(+7.7%)의 실적 호조 소식에 힘입어 주가 상승. 하지만 전일 장 마감 실적을 발표한 넷플릭스(-2.2%)는 4 분기 기대감이 선반영 되었다는 도이체뱅크의 투자 의견 하향 여파로 하락, 유나이티드 에어라인(-0.6%)은 실적 서프라이즈에 불구하고 하락. 반도체지수(-0.2%)는 ASML(-4.2%)의 부품 공급 부족 현상으로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가이드언스를 제시하면서 하락.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한 테슬라 실적은 매출 137.6 억 달러(vs. 예상 136.3 억 달러), EPS 1.86 달러(vs. 예상 1.59 달러)를 발표하며 서프라이즈 기록. 실적 호조는 자동차 분기 최고 판매량 기록(24.1 만대 판매, 23.8 만대 생산)과 마진율 개선(26.6%)가 주요 요인이었음. 현재 시간외로 0.7% 하락 중.

미국 10 년물 금리는 장중 1.67%까지 상승하는 등 오름세를 보였고 이는 성장주들에게 부담 요인으로 작용. 금리 상승은 금요일 파월 연준 의장의 의회 증언을 앞두고 테이퍼링, 인플레이션 지속 등 매파적인 발언에 대한 경계심에 의해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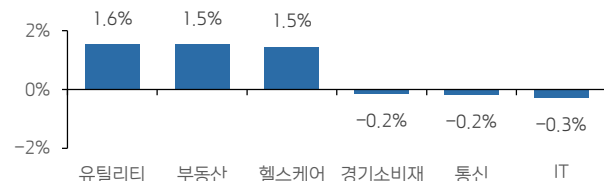
한편 이날 공개된 베이지북은 공급망 차질, 고용 부족, 그리고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성장이 둔화되었다고 언급. 발언이 있었던 웰스 연준 이사는 테이퍼링을 시작할 때가 되었지만, 내년 인플레이션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금리 인상은 너무 이르다고 언급.

S&P500 & NASDAQ 일종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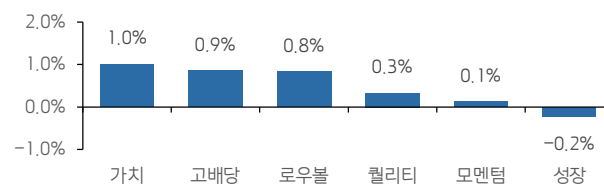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S&P500	4,536.19	+0.37%	USD/KRW	1,174.45	-0.37%
NASDAQ	15,121.68	-0.05%	달러 지수	93.61	-0.14%
다우	35,609.34	+0.43%	EUR/USD	1.17	-0.01%
VIX	15.49	-1.34%	USD/CNH	6.39	+0%
러셀 2000	2,289.77	+0.61%	USD/JPY	114.28	-0.03%
필라. 반도체	3,374.22	-0.21%	채권시장		
다우 운송	15,461.68	+1.03%	국고채 3년	1.847	-0.7bp
유럽, ETFs			국고채 10년	2.397	+2.7bp
Eurostoxx50	4,172.17	+0.13%	미국 국채 2년	0.385	-1bp
MSCI 전세계 지수	739.24	+0.73%	미국 국채 10년	1.657	+1.9bp
MSCI DM 지수	3,136.19	+0.71%	원자재 시장		
MSCI EM 지수	1,294.57	+0.9%	WTI	83.6	+1.41%
MSCI 한국 ETF	80.65	-0.55%	금	1782.9	+0.7%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0.55% 하락, MSCI 신흥국 ETF 는 0.02% 하락. 유렉스 야간선물은 0.19%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77.13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2원 상승/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테슬라의 어닝 서프라이즈에 따른 국내 2차전지주들의 주가 반등 여부 2. 한국의 10월 20일까지의 수출 결과 3. 최근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었던 K-콘텐츠 관련주들의 차익실현 물량 출회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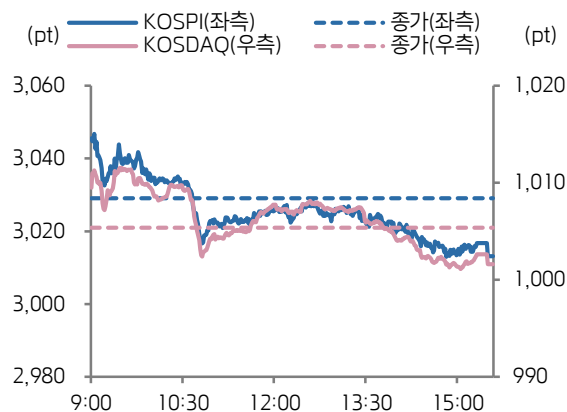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연준이 베이지북에서 지적했듯이, 현재까지 대부분 지역에서 인력난이 발생하고 있으며 병목 현상에 따른 투입 비용 증가, 마진 압박으로 기업들이 가격을 고객에게 전가하려는 분위기가 짙어지고 있는 모습. 이처럼 공급난 인플레이션 이슈는 현재 진행형이며, 19일, 20일 양일에 걸쳐 랜들 켈스 연준 이사도 인플레이 위험을 언급하며 내년에도 고물가가 지속될 시 금리 인상이 빨라질 수 있다고 경고한 상황. 연준도, 시장참여자들도 데이터 의존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쉽지 않은 환경에 직면한 것은 사실

생각해볼 점은 병목현상이 일어난 것은 수요 급증 영향도 있으며 기업들의 가격 전가 역시 고객들이 이를 흡수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또한 현재까지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중 80%가 예상보다 높은 호실적을 기록했다는 점은 인플레이션 부담 요인이 제한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 중국 정부에서 가격 통제를 위해 석탄 시장에 개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글로벌 운임 관련 데이터들도 고점 도달 시그널이 포착되고 있는 만큼, 현재의 고물가 현상에 대해 부정적인쪽으로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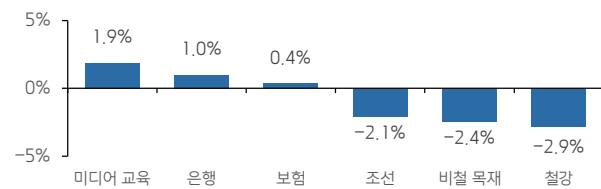
비트코인이 한때 8170 만원을 돌파하며 장중 신고가를 경신한 현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 이를 감안 시 금일 국내 증시도 미국발 훈풍에 영향을 받아 상승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 장중에는 테슬라(시간외 주가는 하락)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최근 단기 조정을 받았던 2차전지주들의 반등 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지를 주목할 필요. 물론 최근 단기 급반등에 따른 속도 부담이 존재하는 만큼 금일 지수 상단은 제한될 것으로 보임. 다만, 장중 발표되는 한국의 10월(20일) 수출 결과가 예상보다 호조세를 보일 경우 상승 탄력이 개선될 수 있다고 판단.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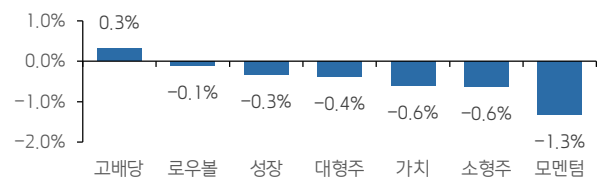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Quantiwise, Fnguide,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서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서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서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신,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